

자살, 그것은 죄악인가? - 리엘

2026년 1월 7일

우리의 삶은 온갖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소음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우리 안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행한 행동이 영혼에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를 압니다. 우리에게 "멈춰,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해주는 본능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능력은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죄를 짓느냐,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죽은 것은 당신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당신의 영혼을 정화시켜 줍니다. 단, 다시는 그 죄들을 저지르지 않는 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도둑질이자 살인이다. 나는 너의 창조자이며, 자살은 내가 창조한 영혼을 훔치는 행위이다. 살인은 타인을 죽이는 것이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든 죄악이다. 나의 모든 자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나는 내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고 너희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우울함, 외로움, 공허함 대신 나로 너희 영혼을 채워줘.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해답이야.